

이슈
보고서

2021

08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이승준

머리말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높여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12월 195개 나라가 체결한 파리협정은 탄소중립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협약으로 는 최초로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다. 즉, 모든 참여국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 하여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묶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021년은 마침 파리협정이 발효된 해인데, 때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난 세대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2015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고 인류가 당면한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하여 UN Global Compact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에서도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던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고객, 직원, 공급망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정신의 확산으로 ESG는 어느덧 우리 시대 기업 경영에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각인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SG 경영 부상 배경과 함께 그 중요성을 알리고, 보험회사 ESG 경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에 참고가 될 글로벌 보험그룹,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뿌리내리고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5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ESG의 개념	2
2. ESG의 배경	3
3. 연구의 목적 및 기여	10
II. ESG 경영의 필요성	12
1. ESG 관련 규제 강화	12
2. 시장의 요구	24
3.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	31
III.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34
1. ESG 전략과 지배구조	34
2.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	42
IV.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	63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63
2. 보험인수	66
3. 자산운용	71
V. 요약 및 시사점	73
• 참고문헌	75
• 부록	79

표 차례

〈표 I-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8
〈표 II-1〉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14
〈표 II-2〉 TCFD 권고안 주요내용	20
〈표 II-3〉 UN 책임투자원칙(PRI)	27
〈표 II-4〉 ESG 투자 방식	28
〈표 II-5〉 글로벌 ESG 투자시장 규모	28
〈표 II-6〉 국내 ESG 투자시장 규모	29
〈표 III-1〉 알리안츠 그룹 주요 재무성과 요약	36
〈표 III-2〉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	45
〈표 III-3〉 알리안츠 사업 라인별 ESG 절차	47
〈표 III-4〉 ESG 채점 평가 지표	54
〈표 IV-1〉 지속가능 솔루션 정의	65
〈표 IV-2〉 알리안츠 지속가능보험 솔루션 매출	68
〈표 IV-3〉 알리안츠 신흥국 보험 매출	70

그림 차례

〈그림 I-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6
〈그림 III-1〉 알리안츠 핵심 ESG 지배구조 절차	47
〈그림 III-2〉 알리안츠 ESG 적용 절차 순서도	48
〈그림 III-3〉 지역 자회사와 그룹단위 ESG 평가	49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에 경도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기업과 관계된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 MZ세대로 불리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 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각종 ESG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순위를 받으며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권역 ESG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이라는 ESG 전략 아래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아래 ESG를 경영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 ESG의 개념

ESG 경영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 같은 단기 재무성과보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함)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환경 관련 주요 이슈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공기 및 수질 오염, 산림훼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 이슈로는 인권, 아동노동, 노동조건, 공급망과 중간재 조달, 데이터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는 투명성, 부패와 뇌물, 경영진 보상, 이사회 구조와 다양성, 내부고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Green),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Sustainable), ESG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¹⁾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하여 경제성장이나 발전까지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녹색은 탄소배출과 이에 따른 기후위기와 함께 생태 및 생물다양성과 자연보존 등 환경문제, 사회책임은 불평등, 인권, 부패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볼 수 있다.²⁾ ESG는 주로 기업 경영 및 투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속가능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ESG 경영은 지속가능 경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환경 및 사회 문제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과 같은 지배구조도 함께 고려한 경영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윤리적 기업경영의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CSR은 기업이 단기적 수익을 극대화한 후 자선적 성격으로 환경과 사회적 이슈의 완화를 위하여 수익 일부를 지출하는 개념으로 단기적 수익을

1)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UNEP(2016)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려한다.

대조적으로 ESG 경영은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의 가치(장기적 주주이익 포함)를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목적함수가 CSR에서는 단기적 수익 극대화라면 ESG에서는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결합된 효용(Joint Utility)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2. ESG의 배경

ESG 경영의 대두 배경으로는 주주의 단기 수익 위주 경영에서 심화된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지난 세대 경제·경영의 주류이던 시장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기업은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는 가치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기업의 목표를 주주를 위한 수익극대화에 두고 경영을 해왔는데 이는 프리드먼 독트린(Friedman Doctrine)³⁾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개인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던 지난 세대 경제·경영 패러다임은 결국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세대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과 환경파괴라는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었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2020년 봄부터 글로벌 팬데믹으로 변진 코로나19(COVID-19)의 창궐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도 결국 인간의 환경파괴로 서식지가 사라진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점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자주 팬데믹으로 변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온 환경파괴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아우르는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이 CSR을 대체하며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성찰을 통하여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 불리는 단기 주주이

3) Friedman, Milton(1970. 9. 13), “A Friedman Doctrin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의 중심의 가치중립적 기업경영에서 탈피하여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함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의 토대가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상하게 되었다.

가. 기후위기와 파리협정

인류활동의 결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와 함께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지난 세대에 걸쳐 축적되었다. 이에 2015년 12월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논의의 초점이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에 맞추어져 있다. 2020년 말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협약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을 것을 목표로 하며, 가능한 한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하며,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202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점검⁴⁾을 하게 된다.

2021년부터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 등 정책 변화가 나라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파리협정은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보험회사도 ESG 경영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심화시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며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4) 파리협정 제14조에서 협정의 목적과 장기목표의 전체적인 진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제적 이행상황 점검을 규정함

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⁵⁾에서 정의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진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⁶⁾”을 의미한다. 지난 세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에 UN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개발(Development)이라는 의제⁷⁾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2015년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1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합의하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합의문 서문에서 이 의제가 사람, 환경,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며, 보다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며,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특히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등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그림 I-1〉 참조)를 제시하고,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다.

5) 전 노르웨이 총리, Gro Harlem Brundtland가 WCED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발간하여 Brundtland Report로도 불림

6)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7) 권상철·박경환(2017)

〈그림 I-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료: 유엔개발계획(UNDP)

합의문 서문에서처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게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의 P로 나눌 수 있다.⁸⁾ 즉, 빈곤 퇴치와 기아 해소, 보건 증진, 교육 보장, 성 평등 달성 등 인류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발전은 사람(People), 경제성장과 일자리 및 산업화와 기술 혁신, 불평 등 해소 등 자연과 조화된 경제적 발전은 번영(Prosperity),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하도록 해양 자원 및 육상 생태계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 보호는 환경(Planet), 두려움과 폭력이 없는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제도의 구축은 평화(Peace)에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인류가 연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들 5개 영역의 17개 목표는 169개의 세부목표로 나누어지고 231개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어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통계가 가용한 경우 국가별 비교도 가능하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를 발간하여 매년 7월 UN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⁹⁾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8) Brown and Rasmussen(2019)

9) UN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검토를 감독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매년 3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¹⁰⁾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진행 보고서(Asia and Pacific SDG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U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 단위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¹¹⁾하여 20년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8년에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통하여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세웠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¹²⁾ 또한 2021년 4월 지속가능발전목표 한국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¹³⁾되었으며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보고서」도 발간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글로벌 기업들은 UN Global Compact(UNGC)¹⁴⁾를 통하여 협력·지원하고 있다. UNGC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권, 노동 조건, 환경 및 반부패 영역에서 기본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UNGC 10대 원칙¹⁵⁾을 준수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하여 UNGC 10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 전략, 정책 및 절차에 녹여 내고 기업 문화에 진정성을 확립하여, 인류와 환경을 물론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1)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환경부 보도자료(2020. 12. 11),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13) 통계청 보도자료(2021. 4. 1),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발표 - 성평등, 산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한 SDGs 현황 점검”

14)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2007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7개국 14,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함

15) UNGC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 유엔 반부패협약(2003)에서 도출됨

〈표 I-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영역	원칙	내용
인권	1	선언된 국제적 인권보호를 지원하고 존중
	2	인권유린에 연루되지 않은 지 확인
노동	3	단결의 자유와 단체협약 등 기본적 권리 지지
	4	모든 형태의 강제 및 의무 노동 철폐
	5	아동 노동의 효과적 폐기
	6	고용과 직업의 차별 철폐
환경	7	환경 문제에 주의적 접근을 지지
	8	환경 책임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9	환경 친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
반부패	10	강요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자료: UN Global Compact

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상

이해관계자란¹⁶⁾ “기업의 행동에 의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손상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는데, 기업 윤리의 관점에서 기업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과 그 경영자는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기업권리의 원칙),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기업결과의 원칙).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누어지는데, 내부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원, 고객,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하청 기업이나 업무위탁 관련 회사와 중간공급자 등을 포함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규제 및 감독당국, 지역사회, ESG 관련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이는 환경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각성에서 기인한다. 예전에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면 달성되었던 기업경영의 목적은 주주는 물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

16) 이종영(2007)

적인 가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은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에서 181개 주요기업 대표가 2019년 8월에 서명한 기업목적 선언의 내용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졌다.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고객가치를 전달함에 미국 기업의 전통을 보다 심화시켜 고객의 기대에 맞추고 이를 뛰어넘는 방법을 선도하고, 2.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통하여 공정한 보상과 필요한 복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신기술 습득을 위한 직무 실습 및 교육을 지원하면서 다양성, 포용성, 존엄성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며, 3. 중간공급자를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의 사업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회사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4.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면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모든 사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5. 회사에 투자와 성장, 혁신을 위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들의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성과 주주의 효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결속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라는 주제 아래 소득불평등, 기후변화 등 기존 시장자본주의 체제 아래 심화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다보스 선언 20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보편적 목적¹⁷⁾”이 발표되어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의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선언하였다. 즉,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와 사회전체라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할 것과 이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를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강화하는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성과는 주주에 돌아가는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성취하는 가치도 측정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한 보상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 자신이 글로벌 기업 시민이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국제기구와 정부 주도의 지속가능성장과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기업경영 측면에서 호응하고 사회적 공동선의 추구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노력

17) Davos Manifesto 2020: The Universal Purpose of a Compan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제고된 결과이며, ESG 경영은 이러한 인식 제고의 연장선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기여

가.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ESG 경영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기술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글로벌 트렌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ESG 경영이 이 시점에서 필요해진 이유를 지속가능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진행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 도입을 최근 사례까지 기술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기구와 감독기관 그리고 금융 및 보험회사와 일반 기업들 사이에 ESG 경영이 파급되는 상황을 전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해외 주요 보험회사 중 하나로 ESG 경영 및 투자를 선도해 나가는 독일 보험그룹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를 심도 있게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ESG 경영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알리안츠의 ESG 경영 및 투자 사례를 크게 ESG 경영 체계와 ESG 경영 사례로 나누어 기술한다. 경영 체계에서는 알리안츠의 ESG 전략과 지배구조와 함께 ESG 통합체계를 살펴보고 경영 사례에서는 ESG 경영 사례 개관에 이어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ESG 경영 및 투자 사례를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ESG 경영 평가와 공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보다 시급한 과제는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ESG 경영 체계를 참고하여 ESG 경영에 필요한 전략과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사업모형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ESG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 ESG 경영의 평가와 공시와 관련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나. 연구의 기여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최근 ESG 이슈가 부상하게 된 다양한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ESG 경영이 단순한 일회성의 유행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ESG 경영을 통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소를 경영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국제기구를 비롯한 정부, 감독당국 등의 정책적 변화와 국내외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대응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ESG 경영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절실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 소개하는 해외 보험회사의 ESG 경영 모범 사례를 참고삼아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건전하게 뿌리내려 진정성 있게 실행되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ESG 경영의 필요성

1. ESG 관련 규제 강화

지난 세대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 환경의 파괴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UN 주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은 이 같은 필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각국 정부도 지속가능성장과 기후 위기 완화 및 대응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에 시스템리스크 대응 측면으로 접근을 시작하였으며, 각 금융권역의 감독기관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에 윤리적 영역에 머무르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준법의 영역으로 격상될 전망이며 금융회사의 ESG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EU가 주도하던 기후변화 관련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전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서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어젠다로 확장되는 추세로,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정부의 정책 전환과 규제 강화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이라는 파리협정의 글로벌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별로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EU의 그린 딜(Green Deal)과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저탄소 친환경 미래를 담은 장기 국가계획이다. 더욱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EU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던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변화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도 파리협정 재가입을 신호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¹⁸⁾하고 그린 뉴딜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를 위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1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함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순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2019년 가장 먼저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까지 그리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지난 2월에 새로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공조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발표¹⁹⁾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개최되고 4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10월 탄소중립선언을 하였으며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²⁰⁾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국제사회의 탈탄소와 탄소중립 정책 전환에 발을 맞추면서, 탄소국경세 도입과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움직임이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출현 시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1)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파리협정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주요국의 저탄소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금융규제의 변화를 동반하며 EU가 가장 앞서 규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EU는 그린 딜의 실행을 위하여 2018년 5월,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for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채택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및 입법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EU 실행계획은 지속가능 경제로 자금 유입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통합, 투명성과 장기성과 주의의 제고라는 3가지 목표 아래 10개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II-1) 참조).

19) Reuter(2021. 2. 24), "Biden says U.S., Canada to work toward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12. 7),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표 II-1〉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목표	실행계획	내용
지속가능 경제로 자금 유입 유도	Action 1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구축
	Action 2	녹색금융상품 기준 제정
	Action 3	인권유린에 연루되지 않은지 확인(공급망 실사)
	Action 4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Action 5	금융상품 자문에 지속가능성 통합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통합	Action 6	신용평가 및 시장분석에 지속가능성 반영
	Action 7	기관투자가 및 자산운용사 책임에 지속가능성 명시
	Action 8	재무건전성 요건에 지속가능성 반영
투명성과 장기성과 주의 제고	Action 9	지속가능금융 공시 강화 및 회계 규칙 제정
	Action 10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및 장기 의사결정

주: 굵은 글씨는 규제 도입 중이며 아래에서 상술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지난 2020년 3월에는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 그린 딜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될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²¹⁾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적어도 55%만큼 감축할 것을 유럽 기후법에 명기하기로 하였으며, 2030-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EU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다른 나라에 모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EU 대상 무역이나 공급망으로 얽힌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속가능 분류체계

이중 EU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자원순환경제 전환, 대기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존 등 6

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999 (European Climate Law)

대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제활동을 분류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이들 목표 중 적어도 하나와 연계되어야 하며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 분류체계에 따라 비재무공시(NFRD) 대상 기업은 사업 활동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에 투자한 기관과 금융회사도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공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분류체계는 친환경 책임투자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 속한 다른 회사의 ESG 경영 정도를 판단하여 거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현재 EU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 등과 같은 환경 규제가 강한 나라에 비하여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산비용 측면의 이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 전환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와 기업의 환경 요소를 고려한 경영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2일 공포되었다. 이를 통하여 현재 환경 영향이 큰 기업·단체에만 적용하던 환경정보 공개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자산규모의 기업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ESG에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와 기업의 환경 성과평가를 위한 표준평가체계 구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지속가능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여섯 가지 환경목표 등 기본적 체계는 EU Taxonomy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속가능 공시 강화

또한 EU는 지난 3월 10에 발효된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가 회사의 기후변화와 인권문제 등과 같은 환경 및 사회 관련 지속가능 리스크에 대한 노출과 함께 투자가 대상 기업의 ESG 이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들 회사는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요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 리스크 관련 정책, 지속가능 관련 보상 정책과 지속가능 경영관여 정책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 500명 이상 대형 금융회사는 2021년 6월부터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등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EU는 직원 500명 이상 은행, 보험회사와 상장 대기업에 적용되는 2014년 비재무 공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도 개정 중에 있다. EU는 2018년부터 전체 기업 대상으로 비재무 공시를 확대하였고, 2019년에는 TCFD 권고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를 포함하도록 지침(Guidelines)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 딜에 따라 일반기업의 비재무공시가 지속가능 책임투자를 위해서 더욱 중요해지면서 유럽의회는 2018년 5월, 지속가능 금융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재무 공시 강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현재 공개 의견수렴을 마치고 규제 영향평가를 수행 중이다.

EU SFDR 제정과 NFRD 개정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기업 활동의 비재무적 성과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ESG 공시는 기업 활동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재무공시와 함께 기업에 대한 시장규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ESG 공시 관련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을 위하여 ESG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²²⁾ 우선 1단계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3단계로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4)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 제도 도입

EU는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개혁(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보다 강력한 내용의 공급망 실사 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책임 있는 중간재 조달(Responsible Sourcing)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²³⁾하

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2020/2129(INL))

였다. 유럽의회는 EU 대상 수출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등록과 EU 인증과 반복적 위반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거부와 수입금지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제도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모든 대기업에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27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2분기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방지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3번에 해당하며,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 대상 수출기업과 그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의 도입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원료 및 중간재 조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의 착취 등 인권유린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ESG 경영 관점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1)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2017년 결성한 NGFS²⁴⁾는 2019년 4월 발간된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경제적·재정적 금융 위험의 원천이라고 결론내리고 향후 금융시스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가지 권고내용을 발표하였다. 권고내용은 1. 기후변화 위험을 금융안정성 및 미시건전성 감독에 통합하고, 2. 중앙은행의 자체 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며, 3. 공공기관 사이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공유하고, 4. 인식 및 지적 능력의 축적과 기술 지원 및 지식 공유를 장려하고, 5. 강건하고 국제적 일관성을 가진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TCFD)와 6. 경제활동 분류체계(Taxonomy) 개발 지원 등이다.

중앙은행의 국제기구인 BIS는 2020년 1월 발표한 「Green Swan 보고서」²⁵⁾에서 기후변화

24)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은 파리협정의 탄소배출 목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위해 협력함. 2017년 12월 멕시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등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축으로 결성되었으며, 2021년 3월 19일 기준, 89개 회원기관과 13개 참관기관이 참여 중임

25) BIS(2020. 1)

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Green Swan으로 부르고, 그 특성으로 리스크의 확률이 아주 높아 미래에 물리적 또는 전환 리스크로 인한 손실의 발생이 거의 확실시되고,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의 금융리스크보다 더더욱 심각한 재난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며,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와 관련된 복잡성과 파급효과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환경, 지정학, 사회 그리고 경제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가 각국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중앙은행(ECB)은 2021년까지 통화정책 전략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의 금융 시스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며, 통화정책에서도 그린본드를 통합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²⁶⁾ 미국 연방 중앙은행(FRB)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권역의 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이를 금융감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미시건전성 감독 조직으로 감독 기후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 SCC)와 기후변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 측정, 완화하는 거시건전성 감독 조직으로 금융안정 기후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 FSCC)를 각각 만들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금융 부문 리스크에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²⁷⁾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²⁸⁾에서 기후변화 및 금융 부문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따른 전환 리스크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전환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 부족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규제 및 감독체계 등에 전환 리스크가 아직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 사이에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에 차이가 크게 날 경우,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특정 금융회사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금융권역에서도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26) 국제금융센터(2021. 3. 30)

27) Brainard(2021. 3. 23)

28) 한국은행(2021. 3)

2) 기후 관련 금융 공시 작업반(TCFD)

중앙은행과 함께 금융감독당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른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환이 예상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 보험, 자산운용, 연금, 대형 비금융회사의 회계 및 컨설팅 회사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 관련 금융 공시 작업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²⁹⁾을 구성하였다. TCFD는 지배구조, 기업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영역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반영한 금융회사 공시체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³⁰⁾를 2017년 발간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부문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상장 기업에 의무화 되어있는 연차 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 각국의 공시 요건과 맞추어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TCFD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78개 나라 2,000여 개 기관 및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ESG 공시기준으로 입지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많은 주요 기업이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TCFD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TCFD 권고안은 ESG 경영 공시기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ESG 경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투자 등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이를 공시를 통하여 시장과 공유하는 추세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 TCFD는 Michael Bloomberg가 이끄는 민간 금융전문가로 조직되고 운영된 작업반임

30) TCFD(2017. 6)

〈표 II-2〉 TCFD 권고안 주요내용

주제	권고	권고 공시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	a.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 b.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관련 내용을 설명
경영전략 (Strategy)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관련 내용을 설명 c. 2℃ 및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c.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
측정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위험 공시 c.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 설명

주: Scope 1은 모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2는 구입한 전기, 열, 증기의 소비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3은 Scope 2 외 모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로 예를 들어 업무위탁 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임
자료: TCFD(2017. 6)

3) 보험감독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보험권역에서도 환경문제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험감독자들의 국제적 의견교환을 위해 2016년 12월, 지속가능보험포럼(Sustainable Insurance Forum; SIF)을 만들어,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비한 보험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18년 7월, 보험권역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감독자협의회(IAIS)와 함께 발표³¹⁾하는 등 보

31) IAIS(2018. 7)

험권역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보험감독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험감독 기관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향후 기후변화 위험을 보험감독에 반영하는 추세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³²⁾ 또한 SIF와 IAIS는 2017년 6월 TCFD의 권고안 발표 후부터 권고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20년 2월에 관련 보고서³³⁾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보험감독자들도 지속가능보험포럼을 통하여 보험감독에 ESG와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감독의 국제기준인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ICP)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에 따른 시장의 반응

1) 글로벌 보험·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로벌 비정부기구의 연합캠페인인 Insure Our Future에서 발표된 보험산업 탈석탄 보고서³⁴⁾에 따르면 많은 글로벌 보험회사가 석탄산에 대한 신규 인수 및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도 회수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원수보험시장의 12.9%와 재보험시장의 48.3%를 차지하는 23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석탄산업 관련 보험인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매년 확산하는 추세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전체 보험산업 자산 중 40%를 상회하는 12조 달러의 자산을 가진 65개 보험회사가 석탄산업 투자에서 회수하거나 향후 신규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에 앞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거두어들이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43개에 달하는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석탄산업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들 좌초자산의 위험노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현재 8.7조 달러가 넘는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최대 글로벌 투자회사인 BlackRock은 지난 2020년 1월에 25% 이상의 매출이 석탄산업에서 오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32) 최창희(2019. 8. 19)

33) SIF/IAIS(2020. 2)

34) Insure Our Future(2020)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 이니셔티브인 Climate Action 100+는 블랙록,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 등 570개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54조 달러가 넘는 운용자산(AUM)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공시, 기후변화 지배구조의 향상을 위해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보험·금융회사의 기후위기 대응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추세에 맞추어 경영의사결정에 탈탄소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020년 11월, 석탄 채굴이나 발전 사업 등 신규 석탄산업 투자를 중단하기로 선언하였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직접적인 투·융자뿐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목적인 회사채에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특히 삼성화재는 아시아 보험회사 중 최초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보험인수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21년 1월에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회사들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다. 한화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채권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일반 채권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역시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신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금융 움직임은 보험회사를 넘어 전 금융권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112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할 것을 선언하였다.³⁵⁾ 참여 금융회사는 KB, 신한, 우리, NH, 하나 등 은행,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회사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적연기금과 공제회로 다양한데, 이들 금융회사의 2020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Assets Under Management; AUM)는 5,563조 원 규모에 달한다.

3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보도자료(2020),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

이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실천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금융사업 전반에 기후리스크를 비롯한 ESG 요소를 적극 통합,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의 정보공개 지지 및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TCFD)에 적극 노력, 투자기업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적극 요구, 다양한 기후행동으로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 6대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특히 '6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탈석탄 선언, TCFD 지지, 그리고 CD P36) 서명기관 등재라는 3가지 사항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2021년 5월 말 우리나라 주도로 열리는 P4G 정상회담 전까지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3) 적도원칙 가입

국내 대형은행은 ESG 경영 차원에서 적도원칙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선언하였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주로 리스크의 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개발사업의 실사(Due Diligence)와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2월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3월에 마지막으로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였다. 국내 주요 은행의 적도원칙 가입 선언은 ESG 경영의 실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영 확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일반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저탄소 경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RE 100은 2050년까지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작년까지 175개국이 넘는 나라의 290여 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였다.³⁷⁾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고 이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36) Carbon Disclosure Project

37) <https://www.there100.org/>(2021년 3월 14일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수요의 증가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단가가 줄어들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사용이 비용 면에서 점차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으로 사용하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아 RE 100 참여가 쉽지 않았다.³⁸⁾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녹색 프리미엄³⁹⁾ 등의 저탄소 경영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올해(2021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1월, RE 100에 가입한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등 SK 그룹 8개의 계열사들이 올해 한국전력과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맺는 등 향후 저탄소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을 포함한 전력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전기 공급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⁴⁰⁾ 이를 통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RE 100 참여를 통한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경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의 요구

가. 시장의 ESG 인식 제고

매일 접하다시피 하는 이상기온,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 관련 뉴스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각된 불평등 문제 등은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 이슈도 기업 경영과 마케팅 측면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38) RE 100(2020)

39) 기업이 태양광·풍력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한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공사가 올해(2021년)부터 시행 중임.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는 RE 100 이행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음

40)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전기 판매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음

특히 현재 20대 중반에서 40살 전후까지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과 그 이후 출생한 Z세대(1996년 이후 출생)는 MZ세대라고 아울러서 불리는데, 이들은 윗세대와 비교하여 환경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파업을 주도한 18세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로 대표되는 이들 세대의 소비는 기성세대와 차별되는데, 이들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담긴 가치관과 그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대는 자라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접하며 자랐으며, X세대(1965~1980년 출생)로 불리는 부모 세대와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로 불리는 조부모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는 점에서 환경과 불평등 문제에 민감할 수 있다. 이미 사회에서 중추적인 생산을 담당하면서 소비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밀레니얼과 그 뒤를 이을 Z세대의 ESG 인식은 향후 기업 경영에 ESG 요소의 통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투자자 설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말 북미지역 알리안츠 생명보험에서 실시한 ESG 투자 관련 투자자 행동에 대한 온라인 설문⁴¹⁾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79%)가 주요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과 동일한 견해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4%의 응답자가 ESG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 재무성과를 위해 의미 있다고 하였다. 또한 65%의 응답자,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는 그들의 퇴직연금 401k에 ESG 투자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ESG 주제 중 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주제를 물었을 때, 73%는 환경, 특히 자연 자원 보존과 기업의 탄소 발자국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 등으로 답하였고, 같은 비율로 노동 조건과 인종 및 젠더 간 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응답자의 적어도 2/3가 ESG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지만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이 높았으며, 자신들의 가치와 재무적 성취를 일치시키고자 하였고, ESG 가치에 따른 투자 의향 또한 높았다. 대다수의 밀레니얼 세대(81%)가 ESG 투자가 단순한 심리적 만족을 위한 투자전략을 넘어서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Z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투자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

41) Allianz Life Insurance North America(2018)

향에 따른 투자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강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월한 장기적 재무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ESG 투자 관련 성향은 2019년 모건 스탠리 설문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95%가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5%와 비교하여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투자 성향은 앞선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향후 이들에게 전이되며, 그 규모가 미국에서만 약 30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⁴²⁾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처럼 자산운용과 관련된 금융회사에게는 기회요인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 특히 젊은 세대의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 신용평가회사인 A.M. Best의 ESG 관련 설문⁴³⁾에 응답한 97개 보험회사 중 ESG 경영이 중요하다는 회사가 78%에 달하였다. 특히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과 회사 내 인종적 불평등, 그리고 임원의 보수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8%,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책임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6%, 기후위기 관련 ESG 이슈에 대해서는 7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기업에서는 투자자와 직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도 앞으로 규제 입법을 통한 ESG 경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가 실천으로 이어지면 투자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평판을 높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해당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평판도 높여 해당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도 커진다. 또한 기업에 대한 평판 제고는 고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그 기업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는 사업모형이 장기에 걸쳐 소비자의 신뢰가 산업의 성쇠에 특히 중요한 요소인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42) Forbes(2019. 11. 11), "The Greatest Wealth Transfer In History: What's Happening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43) A.M. Best(2020)

나. 책임투자의 확산과 수탁자 책임 강화

1) 책임투자의 정의와 원칙

UN PRI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를 투자결정 및 주주행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투자 전략 및 실행으로 정의하며, 책임투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확산 중이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투자를 한다면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요소 등 비재무 평가도 함께 고려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위험노출을 관리한다.

UN은 2005년 코피 아난 당시 사무총장의 주도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하였다. 2020년 말 현재 3,000여 개 이상의 기관 및 투자회사가 PRI에 서명하였고 이들의 운용자산은 103.4조 달러에 달한다.

〈표 II-3〉 UN 책임투자원칙(PRI)

원칙 1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
원칙 2	능동적 투자자로서 투자 정책 및 실행에 ESG 이슈를 포함
원칙 3	투자대상 기업이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도록 추구
원칙 4	책임투자원칙이 투자산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행되도록 노력
원칙 5	투자원칙 이행의 효과가 강화되도록 함께 노력
원칙 6	우리의 활동과 진보를 원칙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공시

자료: UN PRI 홈페이지

〈표 II-4〉 ESG 투자 방식

ESG 접목 (ESG Incorporation)			적극적 소유권 또는 수탁자 책임 (Active Ownership or Stewardship)	
ESG 이슈를 아래 3가지 접근을 통하여 투자활동에 접목			투자 대상 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 향상이나 보다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개발을 촉진	
통합 (Integration)	선별 (Screening)	테마투자 (Thematic)	주주관여 (Engagement)	위임투표 (Proxy Voting)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결정에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와 수익 제고	투자자의 선호와 가치 또는 윤리에 기반하여 회사를 잠재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포함	매력적인 위험-수익 조합에 임팩트 투자를 포함한 특정 환경 및 사회적 결과를 결합	공시를 비롯한 회사의 ESG 이슈 처리에 관하여 논의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협업	특정 ESG 이슈에 대하여 주주 결의의 제안 또는 제안된 결의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표현

자료: UN PRI 홈페이지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는 ESG 이슈를 투자에 접목하고 이후 투자대상 회사가 ESG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이행한다(〈표 II-4〉 참조). 실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ESG 접목의 예로 전체 매출에서 석탄 매출이 25% 이상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ESG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는 주주관여나 위임투표를 통하여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표 II-5〉 글로벌 ESG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2016		2018		증가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럽	12,040	52.7	14,075	45.9	2,035
미국	8,723	38.2	11,995	39.1	3,272
일본	474	2.1	2,118	6.9	1,644
캐나다	1,086	4.8	1,699	5.5	613
호주/뉴질랜드	516	2.3	734	2.4	218
합계	22,838		30,683		7,485

자료: GSIA(2018)

〈표 II-6〉 국내 ESG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공적연기금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6,622.2 (93.4)	7,055.9 (91.4)	26,974.3 (97.2)	32,459.5 (97.7)
국민연금 (공적연기금 대비 비중)	6,370.0 (96.2)	6,880.0 (97.5)	26,739.2 (99.1)	32,170.0 (99.1)
공제회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0.0	40.0 (0.5)	100.0 (0.4)	119.0 (0.4)
우정사업본부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131.8 (1.9)	150.7 (2.0)	123.0 (0.4)	242.2 (0.7)
공모펀드 (ESG 투자시장 대비 비중)	335.5 (4.7)	474.0 (6.1)	551.9 (2.0)	414.5 (1.2)
전체 ESG 투자시장 규모 (자본시장 대비 비중)	7,089.5 (0.5)	7,720.6 (0.4)	27,749.2 (1.8)	33,235.2 (1.9)
한국 자본시장 규모	1,514,271.5	1,893,469.0	1,578,460.5	1,722,585.8

자료: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모닝스타(2020)

2) 국내외 ESG 투자의 확대

글로벌 책임투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13.3조 달러(16,173조 원)에서 2016년 22.8조 달러(27,814조 원), 그리고 2018년 30.7조 달러(37,329조 원)로 증가하고 있다.⁴⁴⁾ 이 중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 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한다.

국내 ESG 투자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ESG 투자 시장 규모는 33조 2,352억 원⁴⁵⁾으로, 2018년 말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 주식 일부를 ESG 투자로 분류하면서 ESG 투자 규모가 27조 원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운용자산이 97.7%로 ESG 투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모펀드, 공제

44) GSIA(2018)

4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모닝스타(2020)를 참조함

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규모에서 국민연금은 99%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투자 자산은 2019년 말 기준으로 4.4% 정도지만, 2019년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책임투자 전략 수립, 위탁운용 책임투자 내실화와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의결되는 등 ESG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므로 향후 ESG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녹색 분류체계,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그리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ESG 투자 관련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므로 ESG 투자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민간 ESG 투자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탁자책임(Stewardship)의 강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수탁자 책임을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책임으로 설명한다. 즉,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2010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021년 초까지 약 20개 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책임투자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수탁자책임은 투자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수익과 함께, 투자자의 ESG 인식 제고에 따라 이들이 가지는 환경·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이후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2020년 3월 말 125개 기관이 참여하고, 2021년 들어서는 우정사업본부도 1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책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다.

3.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

가. ESG 경영과 재무성과

시장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과 재무적인 성과 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 Friede et al.(2015)은 기존 2,200개의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약 90%의 연구에서 ESG 경영과 기업재무성과 사이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재무성과에 대한 ESG의 긍정적인 영향이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견됨을 보인다. 2015년 University of Oxford와 Arabesque Partners의 공동연구⁴⁶⁾에서도 200여 개의 학술연구, 산업보고서와 언론보도 및 문헌에 기반하여 ESG와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90%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88%의 연구에서 ESG 경영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80%의 선행연구는 ESG 경영이 주가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기업경영이 투자자의 이익에 합치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투자자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Institutional Investor Service의 2019년 보고서⁴⁷⁾도 ESG 지표가 기업가치 및 수익성과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장승욱·김용현(2013)은 ESG 평가등급이 높은 AA 기업군과 낮은 E 기업군의 재무성과를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및 토빈의 큐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E 기업군에 비하여 AA 기업군의 주식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우수하였고, 영업성과와 토빈의 큐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재무성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ESG 경영을 통하여 ESG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ESG 경영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연구 결과는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 등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ESG 경영에 대하여 구매 또는 투자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ESG 경영과 재무 성과 사이에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ESG 경영을 통

46) Clark, Feiner, and Viehs(2015)

47) Spellman and Nicholas(2019)

하여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 내부 비용으로 내재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에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녹색 인프라 구축과 보험산업의 기회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글로벌 움직임과 이에 동조하는 각국의 정책 전환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에게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의 심화가 각종 자연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재무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인수와 위험보유 시 예상되는 손실의 심도와 빈도 증가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산가치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은 보험회사에게는 리스크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 사업모형에 따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측면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또 한 가지 측면은 보험회사의 장기 사업모형에 따른 자산 및 부채구조가 녹색 인프라 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인수자와 기관투자가라는 양면의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는 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향후 미국과 EU는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서 녹색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회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및 환경 분야에 1.7조 달러의 연방정부 투자와 함께 민간자본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5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EU도 그린 딜 투자계획에서 다음 10년에 걸쳐 지속가능 투자에 EU 예산 등으로 1조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며 추가로 민간 및 공공 투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투자 전략을 통하여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국비 42.7조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3.4조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⁴⁸⁾이다.

4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장기에 걸친 사업모형을 활용하면 ESG 투자를 통하여 그린 뉴딜의 녹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면서 수익성도 개선하기에 유리하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로 성장성이 정체된 보험시장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는 보험산업이 수익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는 보험회사의 평판과 함께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III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1.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알리안츠는 ESG 관련 평가에서 일관되게 높은 등급을 받아 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부문 상위권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019년까지 3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보험회사 가운데 수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2021년 S&P 지속가능 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의 보험권역 평가에서 Silver Class 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203개 평가대상 글로벌 보험회사 중 ESG 경영 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⁴⁹⁾ 알리안츠는 2020년 MSCI 지속가능 평가⁵⁰⁾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았으며,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Sustainalytics의 2021 ESG 리스크 평가에서도 14.8을 기록하여 278개 보험그룹 중 5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였다.⁵¹⁾

알리안츠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도 보험그룹 가운데서 지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⁵²⁾(GIST) 그룹의 회원이자 부회장사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UN 주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AOA)⁵³⁾에서도 의장을 맡아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및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ESG 경영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알리안츠의 사례는 이제 ESG 경영

49) 보험회사 중 Zurich가 유일하게 Gold Class 등급을 받았으며, AXA, Cathay Financial, 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Corporation Taiwan, Poste Italiane와 Swiss Re가 Silver Class 등급을 받음

50) MSCI는 ESG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가 있으며, AAA가 최상위, CCC가 최하위 등급임

51) 글로벌 보험그룹 중 Fubon Financial이 평가점수 11.6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AXA가 13.2로 2위, Poste Italiane이 13.7로 4위를 기록함

52) 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년 10월 16일 뉴욕에서 발족된 UN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글로벌 30개 주요 기업 리더로 이루어진 민간 부문 그룹으로, 알리안츠 그룹 CEO, Oliver Bäte가 부회장으로 활동함

53)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협동체이며, 알리안츠 그룹 자산관리와 ESG 담당이사, Gunther Thallinger가 회장(Chair)으로 활동함

을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며, 특히 ESG 경영의 토대가 되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가. 독일 알리안츠 그룹 개요

알리안츠 금융그룹은 보험 및 자산운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1890년 베를린에서 첫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130년에 걸쳐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Allianz SE의 본사는 독일 뮌헨에 위치하며 15만 명이 넘는 직원이 손해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1억 명이 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 그룹의 주된 글로벌 사업모형은 크게 보험사업, 자산운용 및 기업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업은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의 상품을 가계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제공한다. 손해보험 사업부문은 자동차, 사고, 재물, 일반책임,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한다. 생명/건강 보험 사업부문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품과 함께 저축과 투자 중심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알리안츠는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의 리더이면서 생명/건강 보험 시장에서는 상위 5위권의 순위를 가진다.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주요 실적에 따르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성장한 9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전년도 당기 영업손실 2억 8,400만 유로보다 약 2억 유로가 증가한 4억 8,200만 유로에 달하는 당기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8,600만 유로의 당기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알리안츠 그룹의 조직구조는 사업모형과 함께 지역적인 면도 반영한다. 대부분의 보험시장은 알리안츠 지역 자회사가 담당하며,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 모두 보험료 기준 주요 시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이다. 사업부문 중 글로벌 사업망을 가진 회사는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AGCS), Allianz Partners(AP) 그리고 Credit Insurance 등이 있다.

자산운용 관리사업에서 주요 2개 자산운용사는 PIMCO와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Allianz Global Investor)으로, 이들은 Allianz Asset Management(AAM) 조직에 속하여 운영된다. 알리안츠는 적극적 자산관리를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중 하나이다. 알리

안츠 자산관리회사는 넓은 범위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과 관련한 전략, 상품,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주요 자산운용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이다. 이 밖에 기업지원 및 기타사업 부문의 사업활동으로는 지주기능을 통한 알리안츠 그룹의 경영 및 경영지원과 함께 대체투자 등을 포함한다.

〈표 III-1〉 알리안츠 그룹 주요 재무성과 요약

항목	단위	2020	2019	2018	2017	2016
Income statement						
Total revenues 1	EUR(mn)	140,455	142,369	132,283	126,149	122,416
Operating profit 2	EUR(mn)	10,751	11,855	11,512	11,097	11,056
Net income 2	EUR(mn)	7,133	8,302	7,703	7,207	7,329
thereof: Attributable to shareholders	EUR(mn)	6,807	7,914	7,462	6,803	6,962
Balance sheet as of December 31						
Total assets	EUR(bn)	1,060	1,011	898	901	884
thereof: Investments	EUR(bn)	657	626	551	547	537
Shareholders' equity	EUR(bn)	81	74	62	66	67
Non-controlling interests	EUR(bn)	4	3	2	3	3
Other information						
Return on equity 4	%	11.4	13.6	13.2	11.8	12
Combined ratio	%	96.3	95.5	94	95.2	94.3
Solvency II capitalization ratio as of December 31 5	%	207	212	229	229	218
Total assets under management as of December 31	EUR(bn)	2,389	2,268	1,961	1,960	1,871
thereof: Third-party assets under management as of December 31	EUR(bn)	1,712	1,686	1,436	1,448	1,361
Employees	-	150,269	147,268	142,460	140,553	140,253

자료: 알리안츠 그룹 홈페이지(2020년도 연차보고서)

나. 알리안츠 ESG 전략 목표

알리안츠의 ESG 전략⁵⁴⁾은 앞에서 설명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17개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하여 지속가능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인 고용인 그리고 헌신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보험회사

알리안츠는 지속가능보험회사로서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ESG 경험을 포함하고 2040년까지 손해보험 분야에서 점진적인 석탄산업 철수를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보험회사의 역할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 빈곤 퇴치, 3. 보건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다. 이 목표를 위한 보험사업 부문의 실행은 독일의 주택지붕 태양광 보험 출시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난민을 위한 건강보험과 같은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보험을 통한 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

2) 책임있는 투자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로서 알리안츠는 자기자본 및 제3자 자산의 투자에 있어 ESG를 고려하고,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며, 2050년까지 자기자본 투자에서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을 없애는 기후 중립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있는 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구축, 13.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알리안츠 기후전환 펀드와 알리안츠 사회책임 채권펀드 등을 통한 지속가능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를 활용하여 풍력과 태양광 파크나 인증된 친환경 건물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석탄산업에서는 철수하는 방식으로 ESG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3) 매력적인 고용인

매력적인 고용인으로서 알리안츠는 양성 평등과 다양성, 직원의 보건 및 안전 향상, 사람과 성과의 중요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 보건 증진, 4. 양질

54) Allianz SE(2021)

의 교육, 5. 양성 평등,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알리안츠는 성별, 종족,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의 다양성을 넓히고, 알리안츠 대학과 링크드인 학습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교육 및 직무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헌신적 기업시민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알리안츠는 고객 중심 가치를 장려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환경에 주는 영향을 관리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2.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6. 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와 연계된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알리안츠는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과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장기적인 기후목표를 가지고 2012년 이후 탄소중립을 지켜오고 있다.

다. 알리안츠 ESG 지배구조

ESG 이사회는 ESG 경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지속가능 지배 구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그룹의 ESG 주제를 정하고 미래 ESG 기준을 정의하며 ESG 관련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알리안츠의 이러한 ESG 경영은 ESG 지배구조와 적용 과정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는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현된다.

알리안츠는 이처럼 그룹 ESG 이사회를 비롯한 ESG 지배구조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다.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그룹 이사회의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그룹 ESG 이사회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이를 그룹 ESG 사무국과 개별회사 ESG 실무그룹을 통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실현한다.

1) 그룹 ESG 이사회

알리안츠 그룹은 ESG 이슈를 전담하는 그룹 ESG 이사회를 2012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그룹 ESG 이사진은 알리안츠 그룹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ESG 이사진의 구성원은 그룹 지주회사 경영 이사회에 재무 및 리스크, 자산운용 그리고 투자담당 이사들이다. 또한 그룹 ESG 이사회는 그룹 홍보 및 기업책임, 그룹 리스크,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llianz Global Corporate and Specialty; AGCS)과 같은 다양한 사업부의 고위 임원들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제별로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투표권은 없다. 이들 중 AGCS의 CEO가 보험 부문을 대표한다.

그룹 ESG 이사회는 그룹의 보험인수 및 자산운용에 ESG 측면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 그룹단위 기후전략, 그룹단위 환경책임 경영 등을 감시한다. 이를 위해 그룹 ESG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알리안츠 그룹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가 내리는 ESG 안전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할 권고를 내린다. 그룹 ESG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알리안츠 그룹 ESG 목표의 전략적 정의 및 지속적 개발
2. 그룹 ESG 접근 방향을 지도하고 연간 ESG 실행계획 승인

그룹 ESG 이사회와 함께 그룹 재무 및 리스크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포함한 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그룹 보험인수 위원회는 보험인수 및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규 보험인수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2) 그룹 ESG 사무국

그룹 ESG 사무국은 그룹 홍보 및 기업책임 부서의 일부로서 그룹 ESG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그룹의 ESG 활동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룹 ESG 사무국의 역할은 ESG를 알리안츠 그룹 핵심 사업라인과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며 ESG 관련 홍보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3) ESG 실무그룹

ESG 실무그룹은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 그리고 지주회사에서 모인 ESG 담당 직원과 대표 직원을 아우른다. 그룹 ESG 사무국의 지도 아래, 실무그룹의 주된 역할은 사업

의 ESG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와 제안들을 개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또한 사업 관련 제안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인식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SG 실무그룹은 연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라. 알리안츠 ESG 핵심 분야

알리안츠 그룹은 ESG 통합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모든 사업 활동에 깊이 고려하고 보험, 투자 및 자산운용 회사로서의 역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포용적 사회를 장려한다. 이는 알리안츠의 기업책임접근(Corporate Responsibility Approach)의 3대 핵심 분야인 기후변화와 탈탄소, 사회적 포용, 그리고 ESG 통합을 통해 추진된다.

1) 기후변화와 탈탄소

2005년부터 알리안츠는 그룹의 기후변화 전략으로 미래 기후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독려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측, 기후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의 세 분야에 집중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7. 합리적 가격의 청정 에너지, 13.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가) 기후변화 리스크 예측

알리안츠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을 예측하고 대비한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기후 관련 공시에 맞춘 투명성을 높이며, 투자한 회사에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ESG 위험을 관리하고, 파리 협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지속가능금융의 추진을 위한 정부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한다.

나) 기후 취약계층 돌보기

알리안츠는 정부, 다른 보험 및 금융회사,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또는 국민의 보장사각을 줄이고, 기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다)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알리안츠는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AOA)에 가입하여, 2050년까지 소유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며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솔루션 제공한다.

2) 사회적 포용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 불안, 양극화가 글로벌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사회적 소요사태, 사회적 갈등과 폭동 등은 알리안츠의 사업 리스크 노출을 증폭시키며 보험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비용을 유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 보험회사이자 투자자로서 알리안츠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존하며, ESG 통합 관점에서 사회적 포용의 증진에 핵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 빈곤 퇴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7.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에 기여한다. 알리안츠는 특히 청소년 지원 중심의 기업시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포용을 장려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3개의 구호재단과 함께 알리안츠는 다양한 구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각 나라에 특수한 사회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추어 알리안츠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13개 재단과 알리안츠의 지역 자회사들은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이를 위해 알리안츠는 중요성(Materiality) 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시민 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은 그룹 전반의 모든 기업시민 활동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시민 활동은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잠재적으로 기업시민 활동이 알리안츠의 평판과 고용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기업시민 활동 중에 Encouraging Future Generations Program은 알리안츠의 대표적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대상 청소년 수를 20% 증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중점은 1.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와 함께 일하고 청년 고용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향상시키고, 2. 지역 알리안츠 자회사가 알리안츠 사회혁신기금(Allianz Social Innovation Fund)을 통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3. 전 세계적인 SOS Children's Villages 지원을 통하여 알리안츠 내에 전문경험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2019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290,000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660,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혜택을 보았다.

3) ESG 통합접근

ESG 통합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알리안츠의 ESG 리스크 노출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알리안츠는 보험인수와 자기자산을 통한 투자 등 사업모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명시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활동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이제 ESG 통합체계 관련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2.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

알리안츠의 ESG 통합체계는 ESG 의사결정의 지배구조와 주요 기준 및 절차 등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사업모형의 실행 시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가. 중요성(Materiality) 평가와 주제 선정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 자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알리안츠도 정기적으로 중요성 평가를 통해 알리안츠의 이해관계자 및 사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경, 사회, 경제 및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인지하여 반영한다.

2019년에 알리안츠의 중요성 평가 방법은 글로벌 공시 및 보고 지침과 외부 평가 요건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알리안츠의 전략적 초점과 함께 보고되는 내용도 한결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리안츠의 지속가능성 접근과 전략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슈와 보고체계에 대한 세부 평가를 거쳤다.

중요성 평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의견과 트렌드 등을 추적하는 자료 중심적 접근을 포함한다. 그리고 운영이나 준법상의 요건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둔다.

중요성 평가는 다음의 주요 단계를 거친다.

1) 검증된 자료를 통한 ESG 전략 이슈 분석

우선 동종 또는 경쟁 회사 6개의 기업책임 보고서를 통해 이들 회사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직원, 직장, 기후변화, 소비자 혁신 등이 동종 업계에서 ESG 관련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ESG 정보회사인 RepRisk에서 받은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알리안츠와 금융산업에 중요한 미디어 기사 및 이슈와 지난 4년간 추세를 파악한다. 가장 일반적인 이슈는 인권, 직원 및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ESG 정보회사, Sig Watch에서 받은 8,000개의 활동가 그룹과 16개 산업에 걸친 15,000개 회사의 활동 및 캠페인 지표를 분석하여 알리안츠와 금융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려와 지난 4년간의 추세를 파악한다. 활동가 그룹과 비정부기구의 가장 일반적 이슈는 기후변화, 환경 및 사회적 금융상품과 사회적/금융 포용으로 나타난다.

2) 알리안츠 내부 소통 플랫폼을 통한 직원 의견 평가

알리안츠 직원들에게 알리안츠와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15가지 이슈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여 1,339개의 답변을 받았다. 알리안츠 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 자연재난 및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난다.

3)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27개 국가에 걸쳐 가계성 고객 대상 설문을 통해 단기(0~3년) 및 장기(6~9년)적으로 알리안츠에 가장 중요한 이슈 3개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들 고객은 중요한 단기 이슈로는 보안 위험, 보건과 지역사회 지원 등을 꼽았고, 장기 이슈로는 인구구조 변화, 자연재난 그리고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기업성 고객 대상으로는 알리안츠 사업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기업성 보험사업과 투자부서 등 2,415명의 리스크 매니저 대상 평가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보험 고객은 가장 중요한 3개 이슈로 안전, 사이버 리스크와

자연재난을 담하였다. 투자받은 회사의 고객은 3대 주요 이슈로 직원 및 직장, 기후변화, 사이버 리스크를 들었다.

4) 전략 이슈의 관련성,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한 분석

알리안츠 사업부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전략 이슈의 관련성,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주요 사업부서별로 중요 이슈를 나누어 이들의 매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알리안츠 지속가능 보고 형태 지정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보고의 형태를 정하기 위하여 알리안츠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자가 뽑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Corporate Citizenship Company를 통해서 실시한다. 분석은 19명의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 전문가(신용평가사, 책임투자자 등)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비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루어지며, 지속가능성 이슈, 내용, 보고서에 담는 형식 중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을 파악한다.

6) 중요 이슈들을 결정하고 우선순위 부여

1~6단계를 거치며 도출된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알리안츠의 중요 이슈들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즉, 이해관계자의 비중/우선순위, 이슈 집적도, 분석자료가 다루는 산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다. 또한 이슈를 중요성 매트릭스로 그려 결과를 그룹 ESG 이사회에서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알리안츠가 지속가능성 전략을 통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 주제가 결정되며 이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	이해관계자 중요도 ¹⁾
기후변화	●●●●●
환경 및 사회적 상품 ²⁾	●●●●●
환경	●●●●●
직원 및 직장	●●●●
인권	●●●●
사회/금융 포용	●●●●
고객 혁신	●●●●
자연재난	●●●●
데이터 프라이버시	●●●
사회적 정치적 불안	●●●
윤리	●●●
사이버 리스크	●●●
안전 리스크	●●●
고객 만족	●●●
동물 복지 기준	●●
보건	●●
인구구조 변화	●●
자선/지역공동체 지원	●●

주: 1) ●●●●● <- 높은 중요도 ... 중간 중요도 -> ●

2) 보험과 자산운용의 ESG 통합, 지속가능보험 및 자산관리 상품, 지속가능 및 책임투자를 말함

자료: Allianz Global Investors(2020)

7) 지속가능 보고서 주제의 평가 및 선정

알리안츠는 중요성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 보고서 사용자(보고 전문가, 신용평가사, SRI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알리안츠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우선적 주제를 인식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 1. 기후변화 접근, 리스크와 기회, 2. 보험 및 자산운용에 ESG 기준 통합, 3. 지속가능 상품 및 솔루션 제공 등이 선정되었다.

전략적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제들은 이렇게 선정된 우선적 보고서 주제와 조율되고 보고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고서에서 다룰 주제가 선정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TCFD 등 규제 영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지속가능 보고서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나. 알리안츠의 ESG 접근방법⁵⁵⁾

1) 비정부기구 의견수렴(NGO Dialogue)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그룹의 ESG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알리안츠의 ESG 접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ESG 접근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마련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선된다.

2) 기업기준 및 지배구조 관점의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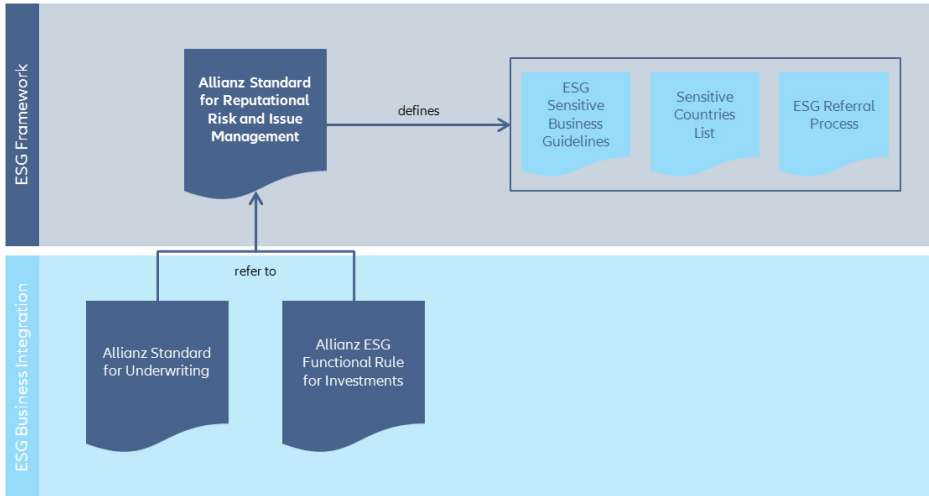
알리안츠의 ESG 접근의 기초는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llianz Standard for Reputational Risk and Issue Management; AS RRIM)으로, 이 기준에서 ESG 적용 절차(ESG Referral Process)와 함께 ESG 민감사업지침(Sensitive Business Guidelines; SBG) 및 민감국가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SCL)을 지정한다.

알리안츠 그룹의 회사들은 보험인수 과정에서 알리안츠 인수기준(Allianz Standard for Underwriting; ASU)을, 자산운용 과정에서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Allianz ESG Functional Rule for Investment; EFRI)을 각각 따른다. 이들 기준을 기초로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과 민감사업지침(SBG)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ESG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다(그림 III-1) 참조).

또한 그룹 내 다양한 개별 자회사(Operating Entities; OE)와 글로벌 사업부(Global Lines; GL)에서도 해당 조직에 특화된 ESG 통합 관련 기준 및 규칙이 있다. 실무 단계에서는 그룹 ESG 사무국과 다른 부서에서 알리안츠 기준 및 기능 규칙(Allianz Standards and Functional Rules)에 제시된 지배구조 및 요건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ESG 과정 및 절차를 정의한다.

55) Allianz(2018)

〈그림 III-1〉 알리안츠 핵심 ESG 지배구조 절차



자료: Allianz(2018)

〈표 III-3〉 알리안츠 사업 라인별 ESG 절차

ESG 절차	내부 지배구조 문서	보험	투자	
			상장	비상장
ESG 적용 절차	AS RRIM	○		○
ESG 민감사업지침	AS RRIM	○		○
민감 국가 목록	AS RRIM	○		○
ESG 점수접근	EFRI		○	
ESG 개입접근	EFRI		○	○
ESG 리스크 대화		○		
ESG 배제 정책	AS RRIM, EFRI	○	○	○
자산 관리자 의무, 선택 및 검토	EFRI		○	○

자료: Allianz(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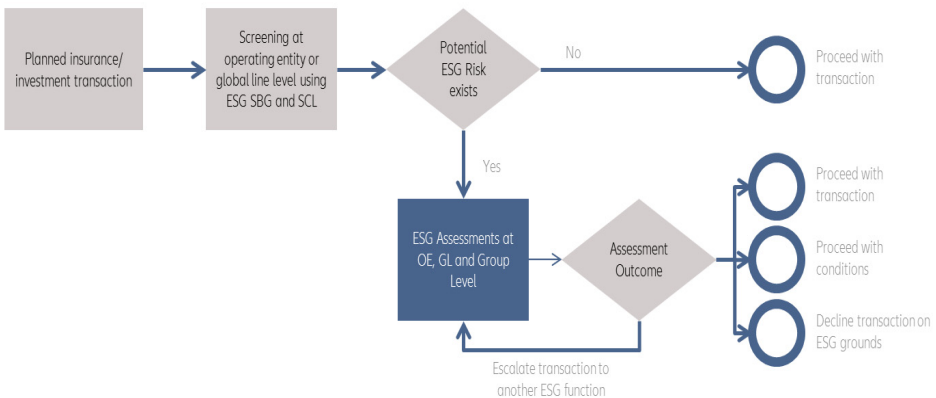
3) 보험인수 및 투자과정에서 ESG 적용 절차

보험인수와 비상장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시 적용하는 글로벌 알리안츠 ESG 적용 절차와 ESG 민감사업지침은 그룹 차원의 ESG 작업반을 통하여 그룹 내부 이해관계자와 비정부

기구와의 폭넓은 소통 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 개발되었다. 이후 적용 절차와 사업 지침은 ESG 작업반의 주기적 검토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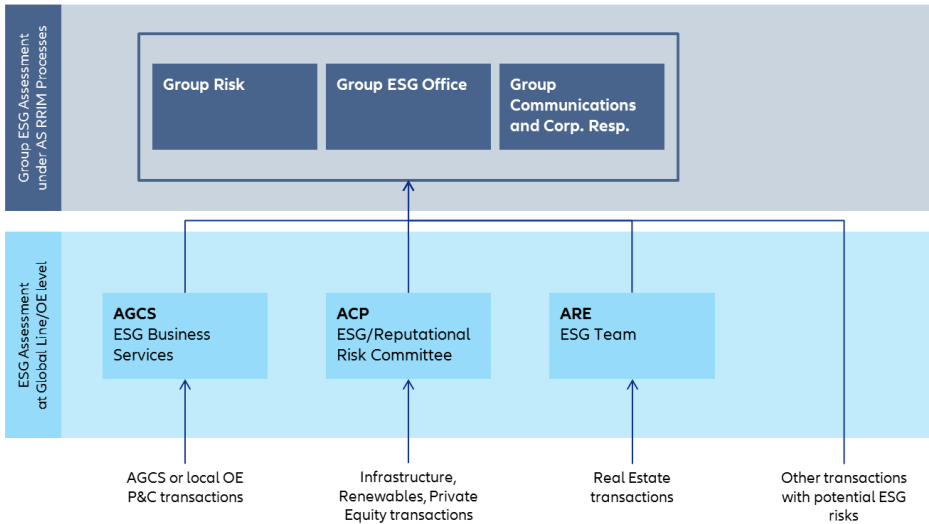
ESG 적용 절차는 알리안츠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13개 민감사업 부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스크리닝으로 시작한다. 스크리닝 과정은 ESG 적용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이를 통해 민감사업 부문에 속하는 보험인수 또는 자산운용과 관련되어 잠재적으로 ESG가 중요한 거래에서 ESG 리스크가 감지되면 의무적 적용 절차가 시작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별회사, 글로벌 사업부, 또는 그룹 수준에서의 ESG 평가를 거치게 된다. 적용 절차는 단일 또는 복수 현장 리스크로 구분하며, 단일 현장 리스크는 보다 세부적인 ESG 평가를 거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배상책임과 같은 복수 현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다 정책적인 평가가 수반된다(〈그림 III-2〉 및 〈그림 III-3〉 참조).

〈그림 III-2〉 알리안츠 ESG 적용 절차 순서도



자료: Allianz(2018)

〈그림 III-3〉 지역 자회사와 그룹단위 ESG 평가



자료: Allianz(2018)

ESG 적용 절차는 여러 단계의 스크리닝과 평가를 거치게 된다. 우선 해당 지역의 자회사(OE)와/또는 글로벌 사업부(GL)에서 잠재적으로 민감한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ESG 스크리닝을 수행한다. 그리고 개별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의 스크리닝을 거친 해당 거래에 대한 ESG 평가가 실행되는데, 현재 모든 손해보험 관련 거래는 Allianz Global Corporate and Specialty(AGCS)의 ESG Business Services에서, 모든 부동산 투자는 Allianz Real Estate의 ESG Team에서, 모든 인프라 투자, 재생 에너지 그리고 사모투자는 Allianz Capital Partners의 ESG Team에서 각각 평가를 담당한다.

이외 지역 자회사 또는 지역 사업부의 책임 한도를 벗어나는 ESG 민감사업 또는 거래는 그룹 단위에서 ESG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 평가 결과 중대한 ESG 리스크가 탐지되면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에 따른 그룹 ESG 평가를 거치는데, 이때 그룹 ESG 사무국은 다른 관련 리스크 및 홍보 담당 부서와 함께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과 민감사업지침(SBG)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지역 자회사/글로벌 사업부 또는 그룹 ESG 사무국과 다른 관련 리스크 및 홍보 담당 부서에 의한 평가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은 1. 거래를 진행, 2. 조건부로 또는 조정을 거쳐 거래

를 진행, 3. (지역 자회사 또는 글로벌 사업부 차원에서) 그룹 ESG 평가로 격상, 4. (그룹 차원에서) 거래 거절로 나눌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인 자회사나 사업부가 ESG 적용 절차에 따른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절차를 그룹 재무 및 리스크 위원회(Group Finance and Risk Committee: GFRC)로 격상시켜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알리안츠가 거래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거래에 대한 조건을 달거나 조정을 거치는 능력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할 때보다 중개인이 있는 거래나 공동인수의 경우, 알리안츠는 거래 조정에 한계를 가진다. ESG 적용 절차의 실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적용 건수는 물론 적용 절차의 진척상황은 성과 지표로 반영되며 매년 그룹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된다.

4)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Sensitive Business Guidelines)

알리안츠 그룹은 ESG 적용 절차의 개발 및 시행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기준과 모범 규준에 맞추어 알리안츠 그룹의 13개 주요 사업 영역⁵⁶⁾에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각 사업에 대한 지침은 각종 리스크의 범주(Criteria)를 나누어 사업 고유의 거래형태에 따라 개별회사 및/또는 그룹단위에서 평가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 ESG 관련 정보제공업체, 고객, 중개인, 공동보험자 및 투자자 제공 정보 등을 포함한다. ESG 가이드라인은 배제기준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잠재적으로 ESG 민감성을 가짐에 따라 ESG 적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거래 관련 ESG 스크리닝에 관계된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전체적인 평가를 거치는 동안 ESG 평가 부서는 특정 거래의 잠재적 ESG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리스크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인프라 관련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의 예시 - 인프라〉

인프라는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쇼핑센터, 사무용 건물, 스포츠 관련 시설 등 상업용 건물, 발전소, 배전선 등 에너지, 학교,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쓰레기 처리

56) 1. 농림어업, 2. 동물복지, 3. 도박 및 사행산업, 4. 임상실험, 5. 동물실험, 6. 방위산업, 7. 인권, 8. 수력, 9. 기간산업, 10. 광업, 11. 원자력, 12. 석유 및 가스, 13. 성 관련 산업

장,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서비스와 텔레컴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알리안츠는 인프라에 대한 주요 보험인수자 겸 투자자로 고객들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규모에 따라 심각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 이슈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 여하에 따라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다.

인프라 가이드라인의 외부 기준과 자료로는 IFC E&S Performance Standard, GRI 건설 및 부동산 산업 지침(Sector Guidance on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국제인권기준(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관련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석탄에 특화된 정보원이 사용된다.

회사, 산업 그리고 국가 고유 ESG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프라 관련 거래는 다음의 리스크 범주에 따라서 스크리닝 된다.

1. 생명다양성 리스크: 멸종위기 종에 주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IUCN⁵⁷⁾ 적색 목록⁵⁸⁾에 등재된 멸종위기 종에 대한 영향
2. 환경 리스크: 송전선이나 접근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또는 국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필요한 공개적 의견수렴의 미실시, (양조장, 공해, 홍수리스크 변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산업 전후방 효과, 발전소의 석유나 석탄/갈탄 사용 여부
3. 지배구조 리스크: 뇌물방지나 반부패 계획/시스템/절차의 부재
4. 지역 사회 리스크: 편익의 공유를 위한 규약이나 보상의 부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무로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의 미확인, 공해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환경에 해를 끼친 사례
5. 보호지역 리스크: 환경,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로부터 30km 이하 떨어진 장소에서 사업(UNESCO 세계문화유산, RAMSAR 습지,⁵⁹⁾ IUCN 1~4 단계 보호지역, 핵심 생명다

57) 1964년 설립된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생태 환경 보존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조직된 정부와 민간의 1,400여 회원 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임(Wikipedia)

58)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작성하는 동물, 식물, 균류 등 지구의 생물 종의 보존 상태에 관한 가장 포괄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생명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적 지표로 사용됨

59)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가입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제주 물영아리',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울산 무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을 군락지', '오대산 습지',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 등 19개소(15. 4 기준)

양성 지역)

6. 평판 리스크: 알리안츠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 사업파트너, 규제당국, 직원 등)의 평판에 나쁜 영향

7. 이주 리스크: 이주 관련 물리적 피해 발생, 원주민을 포함한 주민, 토지/수자원/재산권의 이동, 적절하게 논의되지 못한 주민의 이주

8. 노동력 리스크: 단체교섭이나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권 무시,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행위나 물리적 위해 발생, 아동 노동, 인신매매나 강제노역 발생, (건강이나 안전 기준, 임금 등의 측면에서) 기준 이하의 노동조건, 하청기업에 대한 기준 이하의 노동조건

9. 석탄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험인수와 투자 배제: 2018년 5월과 8월, 알리안츠는 석탄 관련 인프라 배제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

5) 민감 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알리안츠 평판리스크 및 이슈관리 기준(AS RRIM)은 민감 국가 목록을 담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인식하고 이들 거래를 인권 관련 ESG 적용 절차에서 다루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해당 국가에서 체계적 인권유린이 일어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와 같은 분쟁지역부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 국가단위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알리안츠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중 인권 영역이 적용된다.

물론 법적·경제적 제재가 이들 국가에 내려진 경우에는 이미 인권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는 상태이므로 준법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거래 관리를 하게 된다. 그룹의 ESG 사무국은 민감 국가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6) ESG 채점 접근(ESG Scoring Approach)

알리안츠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목표는 고객들에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

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위키백과)

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ESG 리스크와 기회를 자산운용 초기 과정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SG 채점 접근을 통하여 알리안츠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적 재무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ESG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 ESG 연계 정보의 통합으로 알리안츠의 우선적인 자산운용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이 접근법은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회사(Allianz Global Investors)와 PIMCO의 자산운용 매니저와의 밀접한 협업을 통하여 그룹 ESG 사무국과 알리안츠 투자관리회사(Allianz Investment Management SE)에서 개발하였다. 알리안츠는 MSCI의 ESG 평가와 점수 자료에 기초하여 37개의 핵심 ESG 이슈에 따라 ESG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여 자산운용에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 특히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세계 야생동물 기금(World Wildlife Fund)과 Germanwatch⁶⁰⁾ 등 비정부기구에서 ESG 채점 사업의 초기 개발에 관여하였고, 이들의 ESG 주제에 대한 전문적 경험은 접근법의 전반적인 체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였다.

ESG 채점 접근법은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EFRI)에 따라서 운용되며 초기의 실행은 독일 알리안츠 생명보험과 독일 알리안츠 건강보험에서 실험을 거쳤으며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알리안츠의 글로벌 자산운용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채점 과정은 ESG 데이터 통합, ESG 기준점 설정, ESG 채점 과정 실행, 체계적 개입 그리고 ESG에 특화된 자산운용 매니저의 성과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ESG 데이터 통합은 MSCI의 ESG 통계자료를 알리안츠의 투자관리정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와 PIMCO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분석 팀은 물론 모든 자산운용 관리 직원까지 MACI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보다 심층적인 정성 및 정량적 ESG 연구 및 데이터는 MSCI 매니저 툴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채점 과정의 ESG 기준점(threshold) 설정은 낮은 ESG 성과를 갖는 회사를 인식하기 위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낮은 ESG 성과를 보이는 회사는 높은 ESG 및 평판 리스크와 연관

60) 빈부문제 등 지속가능개발과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의 비정부기구임

된다. 모든 MSCI ESG 평가 모집단에 속한 증권 발행 기업들은 지역(유럽, 북미, 아태, 신흥국)별로 그룹지어 지지만 국채 발행 국가에 대한 지역 구분은 없다. 기준점은 각 발행 그룹별로 ESG 성과 하위 10%로 정해진다. 즉, 해당 발행 그룹별로 기준점은 하위 10%이다. 알리안츠는 각 그룹의 기준점 이하 모든 발행회사를 유의해서 보며, ESG 기준점은 ESG 데이터에 기반하여 매년 재평가 된다. 또한 기준점은 투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며 자산운용 매니저들에게 통보된다.

〈표 III-4〉 ESG 채점 평가 지표

3대 주축	10개 주제	37개 ESG 핵심 이슈	
환경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영향 파이낸싱
		제조물 탄소 발자국	기후변화 취약성
	자연자원	물 부족	원재료 조달
		생물 다양성과 토지사용	
	공해 및 폐기물	유해 배기가스 및 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
		포장재와 폐기물	
	환경적 기회	친환경 기술의 기회	신재생 에너지의 기회
		친환경 건물의 기회	
사회	인적자원	노무 관리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안전	공급망 노동조건
	제조물 책임	제조물 안전 및 품질	사생활 보호와 자료 보안
		화학물질 안전	책임투자
	이해관계자 반대	논란적 조달방식	
	사회적 기회	홍보 접근	건강관리 접근
		재정 접근	영양 및 보건 기회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소유와 지배
		보수	회계
	기업행동	기업윤리	부패와 불안정성
		독점적 행동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세금 투명성	

자료: MSCI ESG Research; Allianz(2018)에서 재인용함

ESG 채점 과정의 실행은 기존 포트폴리오 투자 분석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때 이루어지며, 자산운용 매니저는 해당 투자의 ESG 점수와 그에 대한 기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기준점 이하 발행자에 대한 투자는 피하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투자의 재투자자와 신규투자자에 모두 적용된다. 자산운용 매니저가 기준점 이하 자산을 유지하려면, 원칙준수 예외설명 규정이 발효된다. 자산운용 매니저는 ESG 사무국이 지원하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와 함께하는 분기별 ESG 검토회의에서 기준점 이하 투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정당성의 예로는 규제요건, 시장 가용성, 그리고 내부 연구 분석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알리안츠에서 기준점 이하 발행 증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에는 체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한시적인 경영참여 과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런 체계적 참여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 그룹 ESG 사무국과/또는 해당 자산운용 매니저에 의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체계적 참여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어지는 “주주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SG 채점 접근을 포함한 ESG 통합은 정기적인 자산운용 매니저 및 ESG에 특화된 자산운용 매니저에 대한 평가요소 중 하나다. 채점 요건의 이행은 측정된 성과평가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도 연결된다.

7) 주주행동(Active Ownership)

가) 참여적 접근

알리안츠에게 적극적 소유권은 ESG 통합접근의 중요한 부분이다. 알리안츠는 해당 회사의 ESG 리스크와 관련 이슈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체계적으로 관여한다.

주된 참여 접근은 ESG 채점 접근과 연계되어 있다. ESG 채점 기준을 밑도는 모든 발행회사는 잠재적인 참여 접근 대상이다. 경영참여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 SE)와 ESG 사무국이 주도한다.

알리안츠가 투자한 회사의 ESG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경영참여의 명확한 목적이 시작부터 정의되어야 한다. 경영참여 목적은 지속가능성 주제와 관련된 강력한 지배구조와 경영감시를 제고하고, ESG 관련 정책, 절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적 공시를 장려하며,

ESG 관련 목표를 정하고 성과평가를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제기준 모범규준 및 체계의 채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나 혐의 사항에 해명하는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특정 경영참여에 국한된 추가적인 목적을 채택할 수 있다.

이들 목적에 따라 알리안츠는 해당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ESG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경험하는 회사의 방안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며, 투자한 회사의 비재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로 행동한다.

지난 수년간 알리안츠의 ESG 참여 접근을 통하여 확인된 중요(material)한 경영참여 주제는 기후변화 문제(탄소배출 등), 자연자원(물 부족 문제, 원료조달 등), 공해 및 폐기물(환경관리 시스템 미설치, 유독 배기가스와 폐기물 배출 등), 인적자본(아동노동, 하청업체 노동조건, 건강 및 안전 문제 등)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알리안츠는 이들 경영참여 주제들에서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및 평판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영참여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모든 지분이 있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 이외 다른 ESG 고려대상 문제의 경우, 알리안츠는 사안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투자한 회사의 성과를 매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ESG 채점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한 초기 연구와 부여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알리안츠는 경영참여가 필요한 소수의 회사를 선정하고, 중복된 경영참여를 피하기 위해 이들 소수의 회사 목록은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와 PIMCO의 경영참여팀의 검토를 거친다. 이미 자산관리 매니저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는 회사들은 경영참여 목록에서 제외된다.

경영참여 대상 우선순위 배정 및 회사의 선정이 끝나면 경영참여팀은 목록에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MSCI ESG 연구, 다른 각종 ESG 자료와 정보 공급자 그리고 각 회사의 기업공시와 발간물을 이용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심층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지원 문서들과 함께 요약되고 문서화되어 장래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영참여팀은 기업실적 홍보부서(Investor Relations), 지속가능성 및 다른 관련 부서에 이메일로 인지된 ESG 리스크와 경영참여 목적에 관련된 초기 질의를 발송한다. 질의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에 기초하여 알리안츠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사안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 통화 및 회의를 통한 경영참여 활동을 계속한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경영참여팀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다음 단계 경영참여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응답내용이 ESG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거나 장래 ESG 관

런 추가적 문제나 논란을 피하거나 해결할 의지나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는 종료된다. 알리안츠는 경영참여 결과의 성공 정도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거나 장래 경영참여 목록에서 제외한다. 끝으로 알리안츠는 경영참여 접근, 실행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투자원칙 투명성 보고서와 그룹 지속가능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한다.

나) 다른 경영참여 활동

ESG 채점 참여(ESG Scoring Engagement)에 더하여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 협동 경영참여, 내부 자산관리 매니저 경영참여 절차를 만들었다.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을 배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알리안츠는 투자한 회사에 석탄 관련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기후중립적 사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석탄기반 배제 경영참여는 단순화된 경영참여 절차를 따른다. 협동 경영참여는 다른 자산 소유자, 자산관리 매니저, PRI와 협동하여 경영참여의 기회를 찾아서 사안별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 자산관리 매니저의 경영참여는 PIMCO와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회사(Allianz GI) 소속 자산관리 매니저가 제3자 고객뿐 아니라 알리안츠를 위한 경영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들 자산운용 매니저들은 경영참여 활동을 웹페이지를 통해 보고한다.

다) 주주권 행사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회사(Allianz GI)가 알리안츠 그룹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지분투자를 한 경우 투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llianz GI는 ESG 고려가 포함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지침에 따라 투표권을 실행하고 투표결정에 대한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지분투자를 한 다른 자산운용 매니저들도 알리안츠를 대리하여 투표권한을 행사하도록 장려된다.

8) 리스크 관련 의견교환

기업성 보험사업 부문에서 고객사와 리스크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특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의 전문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고객사와 알리안츠 모두를 위해

유용한 접근이다. 보험 관련 ESG 리스크와 관련해서 심각한 리스크가 인지되는 경우에 알리안츠는 보험 고객과 리스크 관련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교환의 목적은 인지된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처리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2014년 AGCS ESG 사업 서비스 부서가 설립된 이후, 이런 의견교환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9) 배제 정책

알리안츠는 금지 무기와 석탄에 대하여 그룹 단위 배제 정책을 운영한다.

가) 금지무기 배제정책

금지 또는 논란이 되는 무기 관련 배제 정책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과 집적의 금지에 관한 협약 제2조, 집속탄에 관한 협약 제2조, 생물 및 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집적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그리고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집적과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제2조 등에 따른다. 금지 무기의 개발, 생산, 유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권 발행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알리안츠는 외부 ESG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내용이 논란이 되는 무기와 관련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배제 목록을 분기별로 재평가한다. 특정 리스크가 정기적 검토 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 배제 목록은 임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알리안츠는 무기 관련 배제 정책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실행하려 노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금지된 회사가 주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인덱스에 포함되는 경우와 다른 자산운용사 등에서 관리하는 투자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배제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나) 석탄 배제 정책

① 정책의 배경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하고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산업화 이후 진행된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묶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다음 10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중 석탄은 발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석탄 기반 발전을 엄격하게 축소하여 중지시키고 신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정책이 글로벌 발전의 전환을 통해 저배출 수준에 도달하는 데 요구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알리안츠는 유엔환경계획 금융분과(UNEP FI)의 포트폴리오 탈탄소 동맹(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와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② 정책의 실행

2015년부터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였다. 주식 지분은 철수하였고, 2015년 이전 채권투자는 철수 중이며 2015년 이후 신규투자는 없다. 또한 알리안츠는 단일장소/독립계약 발전소 및 광산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지 않으며, 2040년까지 모든 손해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석탄 기반 리스크를 점차 줄여 없애나갈 계획이다.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을 직접 소유 또는 주식참여를 통하여 지배(간접지배, 최소 20% 지분)하는 회사를 배제한다. 석탄기반 사업이란 석탄 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을 30% 이상 사용하는 회사, 섭씨 2도 상한과 배치되는 0.5 gigawatts의 석탄 용량을 추가하는 사업계획, 섭씨 2도 상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50% 이상의 사업철수가 필요한 사업 등을 말한다. 또한 석탄 채굴의 경우, 석탄 채굴로부터 30%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의미한다.

석탄 발전 사용 비중이나 석탄 채굴 매출 비중의 기준 수치는 점차 강화될 계획이며 알리안츠는 기준 수치를 2015년 30%에서 2040년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2022년 12월 31일에 알리안츠는 기준 수치를 25%로 낮출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 수치의 조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한에 5%를 넘지 않는 조정이 예상된다.

석탄 관련 투자 배제 정책의 예외는 기준 수치를 넘는 회사라도 향후 섭씨 2도 이하 기온 상승 제한에 부합하도록 석탄 관련 비중의 축소 전략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가능하다. 알리안츠는 석탄 발전소, 석탄 광산 및 철도 등 석탄산업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배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알리안츠는 갈탄/석탄 발전소(CFPP) 및 갈탄/석탄 광산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단일장소/독립계약 보험을 더 이상 인수하지 않으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 단일장소/독립계약은 단일 발전소 또는 광산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실이나 피해를 보장하는 것과 고객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제 정책은 신규(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석탄 관련 보험인수 배제 정책에 대한 예외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만 사안별 평가에 따라 적용된다. 이 평가의 기준으로 발전 효율성, 신재생 및 다른 저탄소 대체 발전소에 대한 고려와 이들 대체 발전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 지역에서 발전용량의 부족에 따른 정전 발생과 해당 국가의 (UN 분류에 따른)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기준과 경험에 근거하여 알리안츠는 아주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한다.

알리안츠의 석탄 감축 계획상의 감축 경로는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ETP)의 자료에 기초하며, 알리안츠는 석탄기반 사업모형으로부터 알리안츠의 자기투자과 손해보험 포트폴리오를 2040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알리안츠의 투자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석탄 비중 기준은 ETP의 2°C 시나리오(2DS) 경로보다 더욱 엄격하다.

다) ESG를 고려한 참여에 따른 특정 유가증권 발행자의 배제

경영참여 접근의 결과, 중요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회사는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와 그룹 ESG 사무국의 경영참여팀의 의견에 따라 그룹 ESG 이사회 의장이 그룹 리스크 글로벌 제한(Group Risk Global Restrictions; GRGR)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배제대상 증권은 논란의 대상인 무기나 석탄 배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모니터링 된다.

라) 배제의 실행

그룹 ESG 사무국은 그룹 리스크 부서와 함께 그룹 리스크 글로벌 제한 목록(GRGR List)을 통하여 자산운용 시스템의 투자 배제를 실행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알리안츠 자산운용 데이터 시스템에 통합된다. 내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는 GRGR 목록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통보 받는다. 보험인수에서 배제는 AS RRIM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통합된 배제 리스트는 정기적인 검토를 거치며 필요 시 업데이트 된다.

마) 배제의 모니터링

그룹 ESG 사무국과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는 자산 관리자의 배제 정책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위반사항이 생기는 경우, 그에 책임 있는 자산운용 부서는 사안을 즉시 바로잡기 위하여 자산 관리자와 협의한다.

10) 자산 관리자 선택 권한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

알리안츠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Allianz ESG Functional Rule for Investment; EFRI)은 내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에 의한 ESG 통합의 핵심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규칙은 외부 자산 관리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알리안츠를 대신하여 자기자산을 운용하는 내부 및 외부 자산 관리자가 ESG 요소를 자산운용 과정의 핵심부분으로서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된 자산 관리자의 권한을 다룬다.

가) 자산 관리자 요건

알리안츠의 ESG 자산운용 부서 규칙은 자산 관리자의 특정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 공시와 알리안츠 자기자산에 대한 정책의 적용
- ESG 배제정책의 실행(논란 대상 무기와 석탄)
- 민감사업 영역에 속하는 모든 거래의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준수(비상장 자산)와 ESG 통합체계 고려(상장자산)
- ESG 관련 문제, 우려사항 및 위반에 대하여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로 즉시 공시하고 보고
- 요청이 있으면,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에 외부 보고를 위한 ESG 관련 정보를 제공
- 연례 자산관리 검토 과정에서 ESG 관련 주제를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로 보고

아직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기한 안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알리안츠 자산운용 관리회사(AIM)는 이들 요건 관련 법규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그룹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나) ESG 정책의 최소기준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문서로서 정의된다.

- 자산 관리자가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ESG 세부 원칙을 기술
- ESG 통합의 적용 방안 서술(자산운용 연구, 배제, 모니터링, 보고, 통합 절차의 적절한 실행을 담보할 통제장치 등)
- 가용하고 사용된 자원에 대한 설명
- 연례 ESG 세부 목표
- 책임 있는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식 회사 문서

그리고 UN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 자산 관리자라면 적절한 ESG 통합접근을 가졌을 것으로 간주한다.

다) 연례 검토

ESG 관련 주제 논의는 정기적인 연례 자산 관리자에 대한 검토의 본질적 부분이다. 2014년부터 일반 검토회의에 추가적으로 자산 관리자와 함께 ESG 특정 연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자산 관리자의 ESG 정책, 적용 및 관련 절차를 평가하는 것이다.

IV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알리안츠 그룹은 보험경영의 두 축인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ESG 경영에 통합하여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는 동시에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새로 부상하는 사업기회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도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험산업 지속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평판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는다.

가. 지속가능보험원칙⁶¹⁾

지속가능보험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보험 가치사슬의 모든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거수하여 그중 특정 계약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산업이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믿을 만하고 좋은 품질의 보험상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점증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가 내포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이슈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위험관리 전문산업인 보험산업에는 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반인 신뢰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 회의(Rio+20 Conference)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of Sustainable Insurance; PSI)은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산업 ESG 경영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

61) UNEP Financial Initiative(2012)

해 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속가능보험원칙을 통하여 보험산업이 위험관리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하면 매년 공시와 회비 납입 의무를 가지게 되며,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정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4개의 원칙과 이에 따른 각 보험회사 기능의 시행강령들로 이루어진다.

원칙 1. 의사결정에 보험사업 관련 ESG 이슈를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이사회로부터 리스크 관리 및 위험인수, 상품개발부터 손해사정, 상품판매, 마케팅 그리고 자산운용에 이르는 전 부서의 업무에 ESG 이슈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원칙 2. ESG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험관리 그리고 해결방안 개발을 위해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 협업한다. 이를 위해 고객과 공급망 그리고 원수보험, 재보험과 판매조직에 걸쳐 지속가능보험원칙의 채택과 ESG 이슈에 대한 경각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원칙 3. ESG 이슈에 대한 사회전반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당국과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한다. 이를 위해 정부, 규제당국 및 정책당국에 ESG 이슈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 경감 정책과 리스크의 통합관리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NGO, 협회, 학계, 미디어 등과의 소통을 통하여 ESG 이슈의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원칙 4. 지속가능보험원칙 이행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ESG 이슈 관리에 관한 진전을 평가, 측정,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ESG 관련 공시 및 보고 체계에 참여하며 고객, 규제당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나. ESG를 통한 보험회사의 기회

알리안츠는 ESG 관련 동향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ESG 개발과 연계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환경 보호와 사회적 포용의 필요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마다 알리안츠는 ESG 관련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그룹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1) 보험인수 측면

가) 지속가능보험 솔루션

알리안츠 그룹 전반에 걸쳐, 지역단위 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에서 환경과 사회적 이익이 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 솔루션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여섯 가지 지속가능 솔루션 정의에 따른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표 IV-1〉 참조).

〈표 IV-1〉 지속가능 솔루션 정의

환경 기준	사회 기준
• 환경 그리고/또는 기후변화(예: 신재생 에너지, 환경친화 상품 및 서비스, 녹색 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춘 시장/기술의 개발을 지원 • 고객의 재무(리스크 경감) 그리고/또는 규제(예: CO₂ 규제, 환경배상책임 등) 리스크 노출을 경감	• 사회적 취약층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 “도우미를 돕는” 상품을 포함(예: 자산/단체 직원/봉사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보험제공이 되지 않았을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상품/서비스에 맞춘 보험 솔루션)
• 적어도 다음 중 하나에 대한 보존 또는 완화: 자연자원, 생태 다양성, 환경 또는 기후 변화(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해발생을 막는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장려 또는 보상 등)	• 사회적 취약층에 특별히 맞추어진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장려(예: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던 소외계층의 리스크를 경감) • 사회적 취약층 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경감도 일부 적용
•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환경리스크 보장과 기후변화 영향 대응(예: 날씨 리스크) 그리고/또는 리스크 경각심 제고 그리고/또는 리스크 노출 경감 유인 제공	• 사회적 취약층 관련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예: ESG 취지 관련 마케팅이나 계획 지원)

자료: Allianz(2018)

나) 녹색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보험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갖기 시작하며 글로벌 전력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재생 자원을 통한 발전은 효과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의 핵심 인프라는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상호연계 되어 사이버와 테러 공격이나 극단적 기후현상과 같은 거대한 충격과 이로 인한 파급 및 연쇄효과에 노출

되어 있다. 또한 녹색 에너지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투자자, 건설사, 운영자 및 제조사는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다.

알리안츠는 녹색 에너지 사업의 주요 보험인수자로 계획에서 해체까지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책임보험, 설치 및 건설 전손보험, 해상보험과 기술자문 솔루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한다. 지역 회사와 함께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 알리안츠 재보험과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특종보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통적 보험상품에 더하여 알리안츠는 장기 성과 보증을 포함한 리스크 평가, 품질 보증, 태양광 발전 보증 등이 통합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 자산운용 측면

가) 소유자산 투자의 ESG 기회

ESG 주제와 연관된 투자기회를 찾을 때, 알리안츠의 핵심 포커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 녹색채권 투자, 지속가능 인증 건물에 대한 투자, 개발도상 경제에 대한 인프라 투자, 녹색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기후 또는 다른 환경 문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 지속가능 자산 관리 솔루션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운용(Allianz GI)과 PIMCO와 같은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하여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책임투자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지속가능 테마 소매 펀드에서 특정 필요와 기관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ESG 솔루션까지 다양하다.

2. 보험인수

보험인수 측면에서 알리안츠의 ESG 경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기후 리스크를 인식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위

험관리 전문회사로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알리안츠 그룹의 보험인수 관련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요약할 수 있다.

가. 신재생 및 모빌리티

알리안츠는 고객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예방적 방법에 유인을 부여하고 기후 관련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CGS)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컨설팅이나 독일의 지속가능개발 협력회사(GIZ)와 함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시험적인 혁신 보험 솔루션을 예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의 기후 관련 사업은 기후변화의 현재 및 미래 영향을 연구하여 최적의 리스크 관련 컨설팅도 사회와 고객에게 제공한다.

농업 분야의 마이크로보험과 재보험 경험을 바탕으로, 알리안츠는 혁신적 기후 리스크 보험을 취약 지역에 제공한다. 여기에는 날씨 지수형 보험과 수확 손실 및 가축 피해 보장 등이 포함된다.

알리안츠는 기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5억 명에게 2025년까지 기후 리스크 보험을 제공하는 G7 기후 리스크 보험 이니셔티브에 따른 InsuResilience Global Partnership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험개발포럼(Insurance Development Forum)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들을 자연재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술하였듯이 알리안츠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 관련 손해보험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2018년 5월 선언하였다. 또한 알리안츠는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또는 표준화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은 재생 에너지 산업을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통해 지원하는데,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전문적 보험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2017년 시작된 SURE(Scaling Up Renewable Energy) 프로그램은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험을 통한 보장을 터키와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이들이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알리안츠 재보험과 알리안츠 기후 솔루션의 그룹 전문가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모범규준을 개발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표 IV-2〉 알리안츠 지속가능보험 솔루션 매출

(단위: 개, 십억 유로)

연도	지속가능 솔루션	지속가능 매출
2019	203	1.33
2018	185	1.56
2017	165	1.21
2016	156	1.1
2015	151	1.1

자료: Allianz, Sustainability Report, 각 연도

알리안츠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가계성 보험에서 주행거리 기반 보험료와 사용 횟수 기반 보험료 등을 통하여 보험료도 할인되면서 배기가스 배출을 낮추도록 소비자에게 유인을 주고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보험료가 낮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기업성 자동차보험으로는 Green Fleet Services를 통하여 기업의 자동차에 대한 연비 최적화와 환경친화적 운전습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손상에 대해 알리안츠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부품의 교체보다 수리를 유도한다.

알리안츠는 새로운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가계성 보험에도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안츠 파트너(Allianz Partners)를 통하여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지원을 통한 도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공유 전기 스쿠터와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배상책임과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알리안츠 터키(Allianz Turkey)는 건물 지붕에 사용되는 전기 장치와 태양광 장치 관련 가계성 보험을 개발하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지원한다.

나. 자연재난 관리

지진, 홍수, 산불, 폭풍 같은 자연재난은 지역사회를 초토화 시키고 재난 복구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최근 10년간 15배 높아졌고, 스위스 리⁶²⁾에 의하면 2020년 경제적 손실이 2,0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62) Swiss Re(2021)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9년 1,9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알리안츠는 자연재난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룹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거대재난 리스크(Cat Risk)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새로운 거대재난 리스크 자료 창고(Cat Risk Data Warehouse)를 열어 재난 리스크 모형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리스크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알리안츠 재보험(Allianz Re)은 풍수해나 지진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자연적 위험(Peril)에 대한 지역 사회사의 보험인수에 사용되는 Global Hazard Layer를 최근 시작하였고,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미국과 유럽의 산불에 대한 Global Wildfire Layer도 추가하였다.

다. 사이버 보안⁶³⁾

사생활 침해, 해킹 사고, 대형 IT 서버 다운과 같은 사이버 리스크는 사업상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였다. 2020년 알리안츠 리스크 바로미터에 의하면 사이버 사고는 전 세계 사업상 리스크 중 수위를 차지하였다.⁶⁴⁾ McAfee⁶⁵⁾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이버 범죄자들의 기법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는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어 기업에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알리안츠 글로벌 기업보험(ACGS)은 사이버 보험을 지난 10여 년간 제공하며 사이버 관련 각종 리스크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왔다. 보장하는 손해는 직접 손해(기업휴지, 복구, 위기 소통 등)이며 제3자 피해(데이터 해킹 사고, 네트워크 다운 등)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ACGS는 사이버 관련 보험을 평가하여 사이버보험 관련 보장을 영향에 따라 무보장에서 전액보장까지 다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말부터 출시되는 모든 보험상품에 반영될 예정이다.

63) 보험산업의 신규 리스크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기존 ESG 리스크에 디지털 리스크를 더하여 ESG +D로 표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보고서에 디지털 리스크와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함

64) 2021년 알리안츠 리스크 바로미터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과 팬데믹 발병(Pandemic Outbreak)에 이어 3위를 차지함

65) McAfee(2018)

라. 취약층 보험지원

〈표 IV-3〉 알리안츠 신흥국 보험 매출

연도	시장 수	소비자 수(백만 명)	원수보험료(백만 유로)
2019	12	49.4	410.1
2018	11	44.1	310.3
2017	11	58.7	256.5
2016	11	55	303
2015	11	58.6	135.1

자료: Allianz, Emerging Consumers Report, 각 연도

알리안츠는 1926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저소득 국가,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여러나라에서 취약층을 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신흥국 보험시장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심각한 보험 취약 지대이기도 하므로 알리안츠는 이들 보험 취약층에 합리적인 가격의 효과적 보험상품을 통하여 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알리안츠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년 신흥국 취약층에 대한 보험상품 매출은 4,940명의 소비자에게 4억 1,010만 유로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가 제공되었다. 이는 소비자 연간 1인당 8.31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2018년 4,410만 명의 소비자에게 제공된 3억 1,030만 유로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표 IV-3〉 참조).

전통적 금융서비스 인프라는 이들 신흥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사각을 만들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신흥국 취약층에게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가 된다. 알리안츠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Go-to-market Approach)과 디지털 기술 회사와 협작을 통하여 신흥국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알리안츠에서 신흥국 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을 공급한 예로 2019년 여름 신흥국 인슈어테크 회사인 BIMA와 독일의 지속가능개발 협력회사(GIZ)와 협동으로 모바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통하여 2020년 아프리카 가나에서만 수십만의 새로운 소비자가 신규 건강보험을 접하게 되고 향후 420만 유로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자산운용

가. 지속가능 주제 투자

ESG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알리안츠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인프라 개발과 같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주제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대형 투자자로 2019년 말 지속가능 주제 투자는 294억 유로에 이른다. 런던의 Thames Tideway Tunnel이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인프라, 핀란드의 전력망과 페루의 풍력발전 공원 등을 지속가능 주제 투자의 예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신흥 경제의 지속가능 인프라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들 인프라 시장에서는 재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알리안츠는 물론 다국적 개발은행과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알리안츠는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신흥 아프리카 인프라 펀드(Emerging Africa Infrastructure Fund: EAIIF)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액은 7,500만 유로와 250만 달러이며 EAIIF의 첫 번째 보험회사 투자자로 12년간 투자한다.

알리안츠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 또한 이들 신재생 에너지의 혁신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투자도 한다. 예를 들면 AllianzGI 신재생 에너지 기금, Meridiam 전환기금과 소형 수력발전소 기금 등이다. 알리안츠는 2017년 197억 유로, 2018년 251억 유로, 2019년 294억 유로 등 해마다 지속가능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나. 부동산 투자

알리안츠 부동산(Allianz Real Estate: ARE)은 알리안츠 그룹의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부동산에 특화된 투자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상업 부동산 시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직·간접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자 및 자산 관리자로서 알리안츠는 ESG 요소를 부동산 사업에서 “매입-관리-판매” 사이클에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2050년 탄소 순배출 0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부동산 산업이 40%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서 장래 부동산 자산이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하여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알리안츠 부동산은 전 세계에 걸쳐 146억 유로를 친환경 인증 건물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보유 포트폴리오의 환경 보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글로벌 탄소 회계 및 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다. 주주행동주의 및 수탁자책임 활동

알리안츠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활동 및 기업지배구조가 미치는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위임투표 등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정책을 가지며 이를 수탁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알리안츠는 환경과 사회 이슈 관련 투표를 수탁자책임의 이행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최근 공시된 2020년도 알리안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의하면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는 224개 회사, 491개 주제에 대하여 303회에 걸쳐 경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위한 주주행동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0,183회 투표하였으며, 이 중 72%의 경우에 경영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 관련 주주결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90%에 가까운 찬성 비율로 투표하였으며, 지역 환경 영향 관련 안전에 대하여는 100% 찬성하였다. 2019년도에도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는 303개 회사의 771개 이슈에 대하여 448회 경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위한 주주행동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9,532회 투표하였으며, 이 중 77%의 경우 경영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권하였다.

2020 수탁자책임 보고서는 알리안츠 글로벌투자(AllianzGI)의 주주관여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고하는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투명성/공시가 각각 170건과 34건으로 합하면 약 60%를 차지하고 환경 리스크/영향이 77건으로 20%, 사회적 리스크/영향이 42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알리안츠의 적극적 주주행동은 ESG와 관련된 주제가 9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은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홍보나 인사 조직에서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선도 회사의 경우, CEO와 CFO, 전략담당 임원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 보고서도 발간하였으나, 이제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접근에서 더 나아가 환경과 사회 문제를 경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ESG 경영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험회사의 탈석탄 선언과 같은 경영의사결정은 ESG 경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즉,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이미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MZ세대로 불리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ESG 경영은 보험 회사에게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참여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SG 경영을 통하여 보험산업은 기업책임을 이행하는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을 개선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알리안츠 사례는 이제 막 ESG 경영의 첫 발을 떼려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ESG 전략 및 지배구조 구축과 ESG 통합체계를 활용한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ESG 경영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 단,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의 경영사례에서 예를 들어, 민감국가 목록과 같은 해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해외진출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 보험회사 상황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ESG 경영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전략과 지배구조의 구축은 중요한데 알리안츠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된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라 ESG 전략으로 지속가능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의 핵심을 기후변화와 탈탄소, 사회적 포용과 ESG 통합에 둔다. 알리안츠의 ESG 통합체계는 경영활동 전반의 ESG 노출을 관리하고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ESG 경영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알리안츠는 ESG 통합체계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며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2021. 3. 30), 「ECB의 기후대응 전망 및 영향 평가」
-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 이종영(2007), 『기업윤리 - 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 제6판, 박영사
- 장승욱·김용현(2013),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제30권 제1호, 재무관리학회, pp. 131~152
- 최창희(2019. 8. 19), 「기후변화 관련 해외 보험감독 동향」, 『KIRI리포트』, 이슈 분석, 보험연구원
- 한국거래소(2021), 「ESG 정보 공개 가이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6. 12),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모닝스타(2020), 「걸어온 길, 가야할 길: 한국 사회책임투자시장현황 및 전망 2019」
- 한국은행(2021. 3), 『금융안정보고서』
- Allianz, *Sustainability Report*, 각 연도
- _____, *Emerging Consumers Report*, 각 연도
- _____(2018), *Allianz ESG Integration Framework*, version 3
- Allianz Global Investors(2020), “Engaging for Change, Allianz Global Investors Stewardship Report 2020”
- Allianz Life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2018), “ESG Ethics and Investing: How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mpact investor behavior”
- Allianz SE(2021), “Shaping a sustainable future”
- A.M. Best(2020), “Insurers and Reinsurers: Ignoring ESG Factors Poses Reputational Risk”, Best’s Special Report
- BIS(2020. 1),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Brainard(2021. 3. 23),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n Climate Change”, Remarks at “Transform Tomorrow Today”, CERES 2021 Conference

Brown and Rasmussen(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19

Clark, Feiner, and Viehs(2015), “From the Stockholder to the Stakeholder: How Sustainability Can Drive Financial Outperformance”, University of Oxford, Arabesque Partners

European Commission(2018),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Friede, Busch and Bassen(2015),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and Investment*, Vol. 5, No. 4, pp. 210~233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GSIA)(2018),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IAIS(2018. 7), “Issues Paper on Climate Change Risks to the Insurance Sector”

Insure Our Future(2020), “Insuring Our Future 2020 Scorecard on Insurance, Fossil Fuels and Climate Change”

McAfee(2018), “The Economic Impact of Cybercrime - No Slowing Down”

NGFS(2019. 4), “A Call for Action: Climate Change as a Source of Financial Risk”

RE 100(2020), “RE100 Annual Progress and Insights Report 2020”

SIF/IAIS(2018. 7), “Issues Paper on Climate Change Risks to the Insurance Sector”

_____(2020. 2), “Issues 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pellman and Nicholas(2019), “ESG Matters”, ISS EVA,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Swiss Re(2021), “Natural Catastrophes in 2020: Secondary Perils in the Spotlight but don't forget primary peril risks”

S&P Global(2021), “The Sustainability Yearbook: Tackling parity, plastics and

petroleum - reflecting on values, anticipating risks and identifying opportunities”

TCFD(2017. 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Final Report

UNDP(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EP(2016),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Inquiry Working Paper

UNEP Financial Initiative(2012),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UN ESCAP(2021), “Asian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0”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2020),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_____ (2021), “The Future of the Corporation: Moving from balance sheet to value sheet”

〈관련 웹사이트〉

기후솔루션, <http://www.forourclimate.org/>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https://www.kosif.org/>

AllianzGI Sustainability,

<https://www.allianzgi.com/en/our-firm/esg/esg-research#esgresearch>

Allianz Global Corporate and Specialty(AGCS) ESG approach,

<https://www.agcs.allianz.com/about-us/esg-approach.html>

Allianz Sustainability Report,

<https://www.allianz.com/en/sustainability/strategy-governance/sustainability-report.html>

CDP, <https://www.cdp.net/en>

CERES, <https://www.ceres.org/>

Climate Action 100+, <https://www.climateaction100.org/>

EU Climate Actio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_en

EU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Financial Times ESG Investing, <https://www.ft.com/esg-investing?page=1>

Gloab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http://www.gsi-alliance.org/>

giz, https://www.giz.de/en/html/about_giz.html

Insure Our Future, <https://insureourfuture.co/>

MCSI ESG Investing,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https://www.ngfs.net/en>

RE 100, <https://www.there100.org/>

UNEP F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https://www.unepfi.org/psi/>

UN Global Compact, <https://www.unglobalcompact.org/>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http://unglobalcompact.kr/>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dgs.un.org/>

S&P Global 평가	보험그룹	국가
Gold Class	Zurich Insurance Group AG	Switzerland
Silver Class	Allianz SE	Germany
	AXA SA	France
	Cathay Financial Holding Co., Ltd.	Taiwan
	China Development Financial	China
	Holding Corporation	Taiwan
	Poste Italiane SpA	Italy
	Swiss Re AG	Switzerland
Bronz Class	ASR Nederland N.V.	Netherlands
	Assicurazioni Generali S.p.A	Italy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Taiwan
	NN Group N.V.	Netherlands
	Storebrand ASA	Norway

자료: S&P Global(2021)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이승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이슈보고서 2021-08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발 행 일 2021년 5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앤피

ISBN 979-11-89741-48-8
979-11-89741-37-2(세트)